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 誠
奉 實
意 仕

#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 在 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FAX. 568-6653

〔月刊〕 第124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4月 25日(土曜日) 〔1〕

# 올 어항공사 59건에 27건 발주
# 현포·신양항 등 순조롭게 추진

올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어항시설공사가 예년에 비해 예산확정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청에 따르면 4월14일 현재 총 59건 중 27건(사업비 기준 66%)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이 지연되어 어항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공사발주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발주된 어항은 울도, 낭도, 여서, 소흑산도, 득암, 현포, 신양, 오천, 모항, 대변, 초도, 풍남, 시산, 외포, 지세포, 구조라, 안목, 수산, 어청도, 보옥, 어란진, 오산, 구산, 대진, 죽변, 축산, 홍원 등 27건이며 설계완료된 어항은 매물도, 사동, 수품, 감포, 녹동, 물건, 김녕, 도두 등 8건, 설계 중인 어항은 2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어촌지역 전통문화·체험관광 모형제시
## 마리나 수요 고려 복합적 어항건설 필요
### '해양도서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서 강조

해양수산부는 기존 육지지향적 관광산업을 해양도서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도서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하여 해양도서중심의 관광은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경제안정 기조가 정착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단위의 해양도서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도서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육지관광에 비하여 해양관광은 매우 미약하며 정책적 배려나 우선투자 순위에서도 현저히 쳐져있고 향후 바다행정의 총괄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1만1천5백42km에 달하는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선과 3천1백50여개의 도서를 소유하고 있어 해양도서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관광산업은 해양관련 산업 중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도서의 관광자원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관광 상품으로서는 어촌지역의 전통문화환경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소재로 활용한 어촌계 체험어장, 어촌관광 휴양단지 등이 제시되었으며, 어항시설개발시 마리나 수요를 고려하여 설계시부터 복합목적 어항으로의 건설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항 중에서도 관광에 특화될 어항은 관광어항으로 선정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리나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어촌의 체계적 개발 등 4대과제 중점 추진키로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4대과제로 △해양자원의 관리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해양환경보전과 어선확보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등을 설정하고 이를 7개 정책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8일 국회 21세기 해양정책연구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수산정책 대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라 세계 10위권의 해양산업력을 보유함으로써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 지나친 정부개입과 고비용 구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IMF시대를 맞아 올해안 안에 4천2백억원의 경영수지 악화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해양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전면철폐와 함께 정책기조도 정부주도 체제에서 시장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대과제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2002년까지 총 27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를 공공부문에서 21조원, 민간부문에서 6조원이 조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에서는 해양수산특별회계 설치, 계속비 대상사업 확대 등의 방안으로 조달되며, 민간부문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 차관도입 및 기채발행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해상프론티어공원 조성
## 사천시, 2016년까지

사천시는 남해안에 해양수족관과 이벤트광장 등을 갖춘 프론티어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사천시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1천2백57억원을 들여 실안동 일대 48만5천3백m² 부지위에 프론티어공원을 조성, 남해안 관광의 요람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천시는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01년까지 26억4천만원을 들여 실안동 공원부지에 대한 도로개설과 상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백20억원을 투입, 해수풀장과 해수열탕 등 스포츠 오락시설을 확충하고 3단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쿠아파크호텔과 클럽하우스, 갤러리, 이벤트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이어 2016년까지 프론티어공원 4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 프론티어공원에는 3천5백평 규모의 숙박시설과 2천평 규모의 해수풀장,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프론티어광장 등 각종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돼 남해안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어항공사 분할발주되어야 한다
## 시공상 효율성 도모 국가 이익에도 기여

최근 계약당국에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행정낭비의 초래를 이유로 들어 어항공사를 전체사업을 확정하여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체계를 전환하려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항내의 방파제 공사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2개 이상 업체에게 분리 발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 어항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와같이 발주체계가 바뀌게 되면 정부예산의 낭비, 시공현장의 혼잡, 석산확보의 애로, 민원문제 등 시공상의 비효율성과 중소어항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어항협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항공사는 일반 구조물공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어항공사는 대부분 현장이 도서, 벽지이기 때문에 기상변화에 따른 제약과 작업공간의 협소, 배후기반시설 및 물류시설이 미흡하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른 중장비 진출입에도 제약을 받는 등 작업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당해년도 집행 작업량에 제한이 따른다.

특히 정부의 재정형편상 단기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완공에 최소 10~2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와 더불어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개발전략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개발중인 시설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전체공사비의 증가요인이 항시 잠재되어 있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파제 등 구조물을 연장시설하고, 시설 종점부에는 태·폭풍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두부 설치공사를 해야함에 따라 공사비가 별도로 소요된다. 이와같이 전체 사업량을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어항공사는 분할발주되어 왔다.

어항공사는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계약당국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어항공사를 계약당국의 의지대로 장기계속공사로 총괄계약에 의해 일괄발주할 경우 전체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어 국제입찰에 노출됨으로써 IMF체제하에서 국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국가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요즘, 바람막이 하나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사막 한가운데 내버려진 갓난 아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은 국내 중소 어항건설업체들을 연쇄도산으로 몰아 국가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예를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군의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고, 또한 그들밖에 할 수 없는 제반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대부분의 공사계약금액은 예가대비 99%에서 96%로 집행되고 있는 반면, 분할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어항공사의 경우는 최고 94%에서 89%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다.

또 공사예정가격 산정시에도 장기계속공사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현장사무실, 작업장, 창고, 시험실 등 제비용을 1차년도에만 반영하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에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절감면에서도 어항공사는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항공사는 현행과 같이 분할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할발주만이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견실시공은 물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하나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어항시공에 전력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온 중소 어항건설업체들이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일항내의 방파제 공사를 2개이상 시공자에게 분리 발주코자 하는 문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작업여건이 열악한 어항공사의 특수성과 주 자재인 석재개발을 위한 석산의 공동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규석산 확보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작업장 및 진입로와 각종 피해보상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작업상의 혼잡은 물론 분쟁발생으로 공사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동일항내의 방파제 공사는 단일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어느 측면으로 보나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당국은 이 규정에서 정한대로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동정

## '한국 해양동물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10일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이달의 수산물 '넙치'요리강좌 및 시식회에 참석, 17일 강원도 원주 드림랜드에서 열린 '한국해양동물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4월7일 조달청을 방문하고 어항공사 계약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8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해양수산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해양수산정책 대토론회에 참석, 10일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이달의 수산물 '넙치'요리강좌 및 시식회에 참석, 16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연안역통합관리 국제웍샵에 참석, 23일에는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제18회 정신문화포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의 과제'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4월10일에는 경남의령에서 열린 (주)수협사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21일에는 수협대강당에서 제18대 회장 취임식에 이어 직원식당에서 취임축하연을 개최.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4월9일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수산특정연구개발 사업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1일 화순문화학교 개교식에 참석, 12일에는 선도보호위원 광주지역협의회에 참석, 13일에는 전남지역 공동모금회 법인설립위원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워싱턴 경제전략연구소 사모세지 소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월례회 및 자연보호캠페인에 참석, 20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제37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4월4일 전자대륙테크노마트 개관식에 참석, 6일에는 제일은행 광주지점 이전 개점식에 참석, 15일에는 고경명 장군 4백6주기 추모식에 참석, 16일에는 광주농고동창회 이사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9일 서울대 법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참석, 14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21일에는 백제재현단지 기공식에 참석, 23일에는 21세기경영인 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3일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에 출장, 16일에는 고흥군 도화면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23일에는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7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6일에는 전남치안자문위원회의에 참석, 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의원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나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의날 및 나주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식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3일 제주 4·3사건 행사에 참석, 9일에는 범죄없는마을 심사회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4월2일 제주도 한일친선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4월20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 4월10일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이달의 수산물 '넙치'요리강좌 및 시식회가 개최됐다.
〈사진 가운데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 왼쪽에서 3번째 손정식 회장〉

### 본회인사

▲한국어항협회는 4월17일 박해용씨(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장)를 본회 전무이사로 발령했다.

박해용 전무이사

### 개 설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은 4월17일 수산물종합판매장과 백년로지점을 개설했다.

### 회원가입

▲김규한씨(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이황주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송민수씨(어업지도선과리사무소 운영과장)
▲이기종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호 선장)
▲김희주씨(〃무궁화2호〃)
▲김점곤씨(〃무궁화3호〃)
▲정대윤씨(〃무궁화4호〃)
▲이상조씨(〃무궁화5호〃)
▲한대희씨(〃무궁화6호〃)
▲이강수씨(〃무궁화7호〃)
▲양기원씨(〃무궁화8호〃)
▲길호집씨(〃무궁화9호〃)
▲김두원씨(〃무궁화10호〃)
▲박덕만씨(〃무궁화11호〃)
▲원태중씨(〃무궁화12호〃)
▲임영관씨(〃무궁화13호〃)
▲배익구씨(〃무궁화14호〃)
▲이현우씨(〃무궁화15호〃)
▲우병화씨(〃무궁화16호〃)
▲최재석씨(〃무궁화17호〃)
▲박정열씨(〃무궁화18호〃)
▲하태삼씨(〃무궁화19호〃)
▲김성수씨(〃무궁화20호〃)
▲박해용씨(본회 전무이사)

### 회비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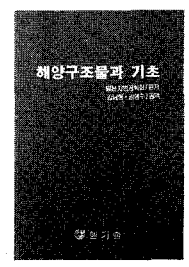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병남)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옹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홍성웅)
▲포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재홍)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근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동철)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락)
▲목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종희)
▲소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일)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홍)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인)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택)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광웅)
▲한국어선협회(회장 안성봉)
▲주식회사문원사(대표이사 김재극)

■개인
▲김광섭씨(속초시청)
▲신영태씨(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이용숙씨(수협중앙회 상무)
▲신석순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이전호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장)
▲정영재씨(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장)
▲신석순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조우연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부장)
▲이신복씨(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민성규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손일수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영남씨(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김하섭씨(한국어선협회 전무이사)
▲박철훈씨(장흥군청)
▲정대연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신순규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황철민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강호석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손승렬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이태일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권혁주씨(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
▲서승남씨(한국해양연구소 연구기획부장)
▲류청로씨(부경대학교 교수)
▲박정태씨(인천항부두관리공사 상무이사)
▲안익성씨(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김익중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민병훈씨(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박해용씨(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차상희씨(전 한국수산회 부회장)
▲송민수씨(어업지도선과리사무소 운영과장)
▲김규한씨(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이황주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이기종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호 선장)
▲김희주씨(〃무궁화2호〃)
▲김점곤씨(〃무궁화3호〃)
▲정대윤씨(〃무궁화4호〃)
▲이상조씨(〃무궁화5호〃)
▲한대희씨(〃무궁화6호〃)
▲이강수씨(〃무궁화7호〃)
▲양기원씨(〃무궁화8호〃)
▲길호집씨(〃무궁화9호〃)
▲김두원씨(〃무궁화10호〃)
▲박덕만씨(〃무궁화11호〃)
▲원태중씨(〃무궁화12호〃)
▲임영관씨(〃무궁화13호〃)
▲배익구씨(〃무궁화14호〃)
▲이현우씨(〃무궁화15호〃)
▲우병화씨(〃무궁화16호〃)
▲최재석씨(〃무궁화17호〃)
▲박정열씨(〃무궁화18호〃)
▲하태삼씨(〃무궁화19호〃)
▲김성수씨(〃무궁화20호〃)
▲이승현씨(주식회사남영 사장)
▲김용배씨(부산광역시청 수산행정과)
▲김봉래씨(전 강원도동해출장소 수산국장)
▲최재학씨(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김남형씨(제주대학교 교수)
▲전정진씨(수협중앙회 청량리지점장)
▲이황주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 신간안내

▲김남형 제주대학교 교수는 최근 '해양구조물과 기초'를 발간했다.




#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 추진

## 규제개혁 차원서 내년 상반기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58억3천만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90% 이상의 투찰가중 최저가격을 낙찰가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중 폐지키로 하고 재경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을 1년 유보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금액을 30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당초 소규모 공사에 적정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정가격누출에 따른 입찰부조리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나 시행과정에서 적정업체 선정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낙찰률을 90% 이상 보장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폐지추진 이유를 밝혔다.

# 도서개발에 1조3천억 투입

## 전남도 2007년까지 248개 섬

전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조3천7백28억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의 2백48개 도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전남도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투자규모는 전국 2조1천억원의 65%인 1조3천여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천9백82억원, 지방비 3천3백53억원, 민자와 융자는 1천 3백93억원 등이다.

사업분야별로는 도서급수와 전기·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에 전체 예산의 38%인 5천2백69억원이 투입되며 어항과 소득증대·저장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는 55% 7천6백12억원이 투자된다.

또 8백47억원을 투입, 환경·위생과 의료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에 4천4백84억원을 투입, 7백46건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완도군에는 3천8백49억원, 고흥군에 1천6백98억원, 진도군에 1천1백5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보성·강진 등 도서를 낀 기타 시·군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차도서개발계획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올해부터 2002년까지는 1차사업의 마무리와 교통·급수·전기 등 미흡한 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게 돼있어 지역건설업계에 상당한 일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설계·감리용역 입찰참가제한 철폐

## 공정위 모든 적격업체에 입찰참여기회 부여키로

설계 및 감리분야 용역입찰 과정에서 현재 몇몇 업체에만 입찰참가 기회를 주도록돼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를 모든 적격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의 경우 사전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5~7개의 상위 우수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돼 있는 PQ제도가 시장경제원리상 과도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격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최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관련조항 중 입찰참가자격수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안과 PQ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안 등 2개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의견수렴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수 제한을 폐지하는 안은 올 하반기 중 그리고 PQ제도를 폐지하는 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령을 고쳐 반영한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우선 현행 설계 및 감리용역 PQ 대상이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치 않고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를 과도하게 제한, 담합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약식검사로 대금지급 재경부 회계통첩시달

약식기성검사 절차가 마련돼 앞으로 관급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약식검사만 통과하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받게 되며 85%미만으로 낙찰된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올해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해서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선금을 받게 된다.

또 공공수급체 구성원중 부도로 공사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을 통해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해야하며 입찰후 계약일까지 기간이 장기화돼 가격변동폭이 클 때는 입찰 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통첩을 제정,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 시달했다.

## 대형공사 16건 입찰방법 결정

해양수산부는 목포북항 물양장축조 등 14건의 대형항만공사를 기타공사로 분류, 연내 시공사선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서동도 연결제축조공사 등 2건의 시설공사는 각각 대안입찰, 일괄입찰방식으로 내년에 집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금년이후 시행할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목포북항 물양장축조, 인천항연안부두 정비 등 14건의 항만공사는 기타 공사로,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서동도 연결제축조공사는 각각 대안입찰,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키로 하고 각 지방청별로 이같은 심의내용을 통보했다.

### 올 건설투자 30% 격감 전망

# 채권발행 등 통해 SOC확충 시급

올해 우리나라 건설투자 규모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지난해보다 30%가량 크게 축소되고 1백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수는 건설과 도소매업종에서 더욱 극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성장률은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마이너스 1% 내외까지 하락하고 특히 건설투자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융경색 그리고 사회간접자본투자 축소 등 주변여건의 악화로 마이너스 30%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기전망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전제할 경우 오는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인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회복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대에 머무르는데 이어 장기적으로도 2~3%수준의 성장률과 6~7천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올해 연간 6%(1백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장년층 실직자와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종의 실업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 실업을 흡수할 것을 제안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각종 채권을 발행하는 이외에 정부소유 공기업 주식을 국내 및 외국의 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 공기업 주식의 매각은 정부부채가 아니므로 재정운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고 채권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 여유자금을 확대하고 이를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공채 인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방파제 선착장 도로개설등 도서주민 현안사업에 투자

전북도가 금년부터 대대적인 도서개발 사업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지속적인 도서개발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부터 제2차 개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는 금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이 사업에 3백68억원을 추가로 투입, 74건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위해 금년도 제2차 도서개발 사업비 9억7천2백만원을 확보, 도로개설 및 선착장, 전기시설 등 주민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금년도 위도개발 마무리 사업에 54억7천1백만원을 투입, 도로개설 및 선착장, 방파제, 여객선 터미널 건축, 상수원 개발, 버스구입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어항정보

# 해양레저를 중시 도서의 매력을 살린다

## 히비키나다(響灘), 해양성레크리에이션지구로

기타규슈(北九州) 市의 히비키나다(響灘)지구 전체를 시민에게 열려진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지구로 완성하기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가지는 시설을 정비하고 어항을 거점으로 하는 어촌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구상은 '감동과 즐거움이 가득찬 바다와의 교류'를 모토로 하고 계획목표와 그에 대응하는 기본방침으로 3가지를 내걸고 있다.

①도시주민과 어촌주민간의 교류 ②어촌환경의 향상 ③생산성이 높은 어업의 실현 등이 계획목표이고 이 계획목표 각각에 대한 기본방침으로는 ①교육 접촉의 장 만들기 ②양호한 어촌환경 만들기 ③산업(어업과 관련산업) 지원의 거점 만들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비에 있어서는 이와야(岩屋), 와이타(協田), 와키노우라(協之浦), 아이노시마(藍島), 우마시마(馬島) 등 5개지역에 적합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지니게 하고 목적이 명백한 정비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야 지역은 'Romantic·Sunset 지역'으로 하고 해수욕이나 윈드서핑 등 마린스포츠를 즐기고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저녁해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기는 장으로서 흰 모래사장을 살린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야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항기반시설을 정돈하고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낚시어업에 의한 활어공급기지와 기존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상호 보완하는 구역으로 하고 있다.

와이타 지역은 'Refresh 해유구역'으로하여 바다와 기존의 녹지 등을 활용하여 친수기능을 높힌다. 이를위해 다목적 광장이나 관광상업시설을 정비하여 도시형 레크리에이션을 개발한다. 어촌마을에서는 어업자용 주택이나 생활근린시설을 정비한다.

와키노우라 지역은 'Fishing·Community구역'으로 말 그대로 낚시와 어업시설을 정비하고 유어선의 발착기지로 한다.

아이노시마 구역은 '자연과 융합하는 해유 아일랜드'로 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풍요롭고 사는 보람이 있는 어촌 만들기를 시도한다. 민박 등이 많고 다이빙이나 물가놀이의 장으로서 자연과 접촉하는 교류구역으로 자리매김 한다.

우마시마 지역은 '자연생활체험 아일랜드'로 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도시에 없는 비 일상적 공간으로서 도서의 특성을 살려 자연속에서 생활체험이나 어업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이들 사업의 주체는 거의 北九州 시가 맡고 있으며, 연안주요 관련 사업으로 어장관리 강화시설은 이와야 어협이, 가공 판매시설은 와이타 어협이, 유류보관 하역 축양시설은 아이노시마 어협이 시행하고 이외에 주차장 레스토랑 매점 등은 민간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해 간다.


# 쾌적한 多技能 어항開發 이룩하여 先進漁村 발전에 寄與하겠습니다

ISO 9001 인증획득

주요사업종목

- ▣ 건설부문 기술용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철도, 교통, 조경, 건설안전, 응용지질,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 ▣ 환경부문 기술용역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 ▣ 교통, 환경영향 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 ▣ 설계감리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 토목, 건축 시공감리
- ▣ 측량 및 조사(토질조사, 탄성파 탐사)
-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처리 시설설계 시공
- ▣ 개업부설 연구소

대표이사 부회장 황광웅 기술사(도로 및 공항)
대표이사 사장 조남철 기술사(토 목 구 조)
수자원부 부회장 김영하 기술사(수자원개발)
도시사업본부 부사장 강신순 기술사(지역 및 도시계획)
도로부 부사장 문병권 기술사(도로 및 공항)
조사부 부사장 박양희
철도부 부사장 송재곤 기술사(철 도)
수도부 전무이사 장세웅 기술사(상·하수도)
농공부 전무이사 정세영 기술사(농·어업 토목)
교통연구실 상무이사 박완용 기술사(교 통)
기술연구소 기술이사 최진상 기술사(상·하수도)
전산실 기술이사 강왕열 기술사(정 보 관 리)
환경부 상무이사 노종식 기술사(대 기 관 리)
상무이사 강병렬 기술사(수 질 관 리)
기술이사 김만덕 기술사(폐기물 처리)
조경부 전무이사 송병돈 기술사(조 경)
감리부 기술이사 한기태 기술사(토 목 시 공)
토질부 상무이사 박병찬 기술사(토질 및 기초)
항만부 기술고문 이삼형 기술사(항만 및 해안)
기술고문 이원환
전무이사 김익중 기술사(항만 및 해안)
상무이사 김영수
기술이사 임중렬
구조부 상무이사 임호상 기술사(토 목 구 조)

株式會社 健化엔지니어링
KU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8-26 TEL : (02)528-7500 FAX : (02)564-7236
항만부(직) TEL : (02)562-3777 FAX : (02)562-4083

건·강·하·게·삽·시·다

식사시간 짧아도 분위기 좋으면 소화 잘 돼

## 식후 30분 정도는 휴식 취하는 것이 좋다

"밥은 잘 씹어서 먹어라"는 말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자주 들은 말이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 것으로 음식물은 가능한 한 잘게 씹어서 삼키는 것이 위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조정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며, 반대로 위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다.

어느 것이나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인데, 식사 중에도 서류를 봐야하는 사람의 경우 교감신경이 긴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장의 움직임은 나빠지고 소화액의 분비도 불충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할 틈이 없는 사람은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한다.

식사때는 일을 비롯해서 위장에 긴장감을 가져오는 것은 잊어버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밝은 분위기로 식사를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소화흡수는 좋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식사 때만큼은 여유를 갖고 밝은 기분으로 하는 게 좋다.

이와함께 '빨리먹고 배설하는 것도 재주 중의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일본군대에서는 빨리먹는 것이 미덕이었다.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적에게 당한다고 해서인데 이 여파가 현대 샐러리맨 사회에서 아직도 남아있다.

아마 일본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먹는 민족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풀코스에 두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유럽인들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인이나 인도인도 일본사람보다는 천천히 먹는다.

그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성급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일식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적고 섬유질의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잘 씹어서 침을 섞는다고 하는 작업을 다소 소홀히 했지만, 그 정도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급히 먹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식후의 한때를 잘 활용하면 위가 제대로 소화해 주기 때문이다.

소화에 제일 좋은 방법은 눕는 것이지만, 샐러리맨이 점심식사 후 누워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식후 30분 정도는 될 수 있는 한 신문이나 잡지를 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가벼운 이야기나 농담을 하는 것도 좋다.

어·항·교·실

#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8〕

## 第2章 浚渫工

(12) 본선영호 부착

본선영호는 해상관과 본선의 접합점이고 양묘선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13) 준설

펌프준설선의 시동은 다음 순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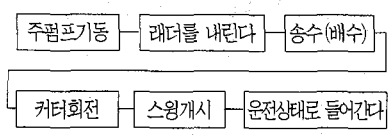



그림 2.2.13 펌프준설선 시동순서

운전시는 선미를 축으로 하고 커터(래더)를 좌우로 스윙하여 해저토사를 준설한다. 굴진은 통상 스퍼드로 하는데 해저지반이 매우 연약하거나 파랑때문에 스퍼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의하여 행한다.

운전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a. 주펌프의 프레셔(pressure), 배큐엄(vacuum)의 상태
b. 관내유속
c. 윈치모터(스윙)의 부하
d. 래더(ladder) 내리기(규정깊이의 확보)
e. 전진의 타이밍
f. 커터의 회전(통상 15~20회/분)
g. 스윙앵커의 재타설
h. 플로터의 조정(앵커와이어의 신축)
i. 준설후 깊이의 확인
j. 배사관의 이상 유무(파손, 폐색)
k. 스퍼드 재타설시의 오조작

조선은 펌프, 주기관의 상태 등에 대하여 기관실과 연락을 취하고, 항상 고함니율로 운전한다.

준설할 흙두께가 매우 두꺼울 경우, 한꺼번에 준설하면 토사의 붕괴로 흡입구가 막혀 과부하 운전을 일으키기 쉽고, 주펌프의 고장이나 스퍼드의 파손 등 큰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 토사 붕괴의 영향이 준설을 완료한 장소까지 미쳐 다시 파야하기 때문에 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흙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적절한 흙두께로 하여 몇 단계로 나누어서 준설한다.

일반적인 일층당 굴착두께의 기준을 표 2.2.7에 제시한다.

펌프준설선의 작업체제는 대형선의 경우 3교대제, 소형선은 2교대제가 일반적이다. 진동, 소음 및 항행선박 때문에 취업시간의 제약을 받을 경우는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기를 운전하고 있는 시간을 운전시간이라고 하나 준설, 흡송수, 스퍼드 교체로 인한 전진시간도 운전시간에 포함한다. 휴지시간의 명세는 전기기계 설비의 고장, 수리, 정비, 해상관의 앵커 대체, 육상관의 교대, 본선의 이동이나 앵커의 교체, 날씨로 인한 대기, 기타이다.

준설작업중은 준설선의 작업위치(선위)나 준설의 깊이를 항상 정확하게 확인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선위의 확인은 통상 준설선에서 육상 혹은 해상에 설치한 기준점을 시준한다. 펌프준설선에서는 주스퍼드와 같은 측정점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 선위의 확인이나 계측방법에는 부표나 장대 등에 의하는 방법, 대분의나 삼한분도기를 이용하는 방법, 원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깊이의 확인은 항상 조위를 환산하면서 한다. 안개·비·야간작업 등 준설선에서 양수표가 보이지 않을 경우 또 양수표를 준설선 인근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는 일정시간, 예컨대 30분마다 양수표측과 연락을 취하여 조위를 확인한다. 이외에 일정구간 굴착후 음향측심기 등으로 궤적의 확인 측량을 한다.

(14) 준설완료 인입

발주자 입회하에 확인검사후, 본선영호를 떼어서 펌프준설선을 인근 계선장소로 끌어들인다.

(15) 해상관 인입

해상영호절단, 플로터·앵커를 끌어올린 뒤, 인입(예항)·계류하고 설비공(해체)을 대기 한다.

표 2.2.7 펌프준설 일층당 굴착두께의 기준

(토질조건: 실트질세사, N치 0~5의 경우)

| 호 칭 | D 200PS | D 600PS | D 1000PS | D 2000PS | D 4000PS | D 8000PS | 비 고 |
|---|---|---|---|---|---|---|---|
| 굴착두께 | 0.60m | 0.80m | 1.00m | 1.20m | 1.60m | 2.00m | ≒커터의 높이 |

♣ 생활정보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1〉

# 금년말 외환보유고 4백억불 이상, 환율 안정이 목표

**IMF체제 극복의 의미와 목표**

포인트 1 : IMF체제 극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개념 : 단기적으로는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외환·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기능에 따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

- 외환·금융위기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 가능
- 그러나 도덕 해이와 방만한 소비행태가 다시 재연된다면 IMF체제의 극복은 이루기 어려움
- 따라서 외환·금융위기의 극복과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건설해야 함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

- 외환·금융시장의 조속안정으로 파국상황의 극복
-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편으로 경제불안정 요소 제거
-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
- 성장잠재력의 보전과 확충
- 국제화 규범에 맞게 제도와 관행의 개편

포인트 2 : IMF체제 극복의 목표설정은?

○당면한 긴급현안과제 해소(98년말까지) : 외환·금융시장의 조기안정으로 산업기반의 와해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추진 및 금융·기업구조의 개편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99년말까지) : 거시경제를 안정시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새로운 시스템 작동의 기초를 확립

**IMF체제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당면한 긴급현안 과제)

포인트 3 :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조기안정 방안은?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중심으로 필요한 외자조달을 추진

- IMF 프로그램을 통한 외자조달, 정부지급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장기전환, 국채의 해외시장 발행추진
- 이에따라 3.10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1백99억불에 달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개혁에 따른 외국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어나고 민간부분의 해외차입이 재개되어

- 금년말 외환보유고가 4백억불 이상이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목표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애로 발생 가능

- 국내 금융사정의 경색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 가능성과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자금의 신속한 유출입 가능성
- 국내개혁이 미흡할 경우 외국의 신뢰 회복 지연

○계획된 외화자금조달 방안들과 함께 다음 대책들을 추진

-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도입 외화자금의 안정성 제고,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 등

포인트 4 :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업구조개편 방안은?

(1) 단기 응급대책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단기응급대책

-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증자 등을 통하여 BIS 비율 제고
- ADB차관자금(10억불) 등을 통하여 신용보증여력 50조원 확대
- 기업어음(CP) 만기연장 및 CP시장 위축 보완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한은총액대출한도 확대(4.6조원→5.6조원)와 원화대출 및 외화표시 원화대출 상환 연장
- 외환시장 안정시 금리를 인하하기로 IMF와 합의하고 통화목표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혁 대책 추진

(금융산업 부문)

- 은행·종금 등의 부실채권 14조원 정리
- 15개 종금사·1개 투신사·2개 증권사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 서울·제일은행의 감자 및 증자 실시

(기업부문)

-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5대 개혁과제를 추진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2000년→1999년사업년도)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소수 주주대표, 주거래은행 등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②상호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000.3말까지 해소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요구관행도 함께 규제

③건전한 재무구조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이상)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을 조기실시(2002년→2000년)하고 유상증자 요건을 폐지

④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과 주거래계열(금융기관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간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등을 포함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추진

⑤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1%→0.05%) 등 상장기업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 생활정보